

2020 새 설계

구충곤 화순군수

“新경제 지도 밑그림 완성...미래 먹거리 산업 집중 육성”



“백신과 생물의약품이 주도하는 신(新)경제 지도 밑그림을 완성해 화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아동청소년·여성·고령 등 3대 진화도시를 조성해 더불어 행복한 화순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경자년 새해를 맞아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선 6기부터 마련한 ‘새로운 성장판’을 발판 삼아 국정과제이자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의 거점인 생물의약품벨트 구축을 본격화하겠다”며 “백신·생물의약품, 문화관광 활성화,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신경제 지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백신·생물의약품과 첨단복합의료산업”이 선도하는 ‘신경제 1번지 화순’을 만들고 지역 경제의 활로를 개척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생물의약품벨트 구축에 속도를 낸다.

구 군수는 올해 생물의약품벨트의 핵심 기관인 국가면역치료 혁신플랫폼(사업비 460억),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180억)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생물의약품제2산업단지(사업비 416억) 조성 준비를 계획했다.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과 함께 구 군수는 누구도 소외 없는 더불어 행복한 화순공동체 실현에도 힘

생물의약품벨트 구축 본격화

다양한 자원 연계 체류형 관광 활성화

소외없는 복지 펼쳐 ‘행복 1번지’로

을 생각한다. 아동청소년·여성가족·고령 3대 진화도시를 조성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3대 진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 제정,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을 수립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 군수는 “영·유아에서 고령층까지, 여성·장애인·다문화가족, 농촌에서 도시까지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고 나이·계층·성별·지역도 소외 없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산재한 문화유산, 풍부한 산림자원 등을 연계해 사시사철 누구나 즐겨 찾는 ‘역사문화기행 1번지’로서 입지를 다지고 ‘관광객 500만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올해 세계겨서테마파크, 고인돌 캠핑장을 개장하고 산림자원, 문화유산, 점

의료복합 기반, 농촌관광 등 다양한 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문화관광 기반을 더욱더 확충하는 한편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 관광브랜드를 창출해 관광객 500만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골고루 풍요로운 부자농촌·농업 실현에도 매진한다. 구 군수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농민수당제를 비롯한 여성, 고령, 영세농 누구에게나 혜택이 가는 맞춤형 영농지원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 개발, 스마트 농업 육성, 유기농업과 6차산업을 육성해 농업 경쟁력을 키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균형 발전에도 힘을 기울인다.

자연마을 도시가스 공급 확대,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지원 확대를 통한 에너지복지 증진,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 하수관로 정비 등을 통해 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확대 추진, 구도심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며 도시계획도로 정비, 농업기반시설 확충해 도농 간 균형발전도 꾀한다.

2020년 주요 사업은

- ▲생물의약품벨트 기반 구축, 일자리 창출
- ▲아동청소년·여성가족·고령 3대 진화도시 조성
- ▲생활SOC 확충, 도시재생 뉴딜사업
- ▲마을혁신지원센터 설립, 자치공동체 활성화
- ▲체류형 관광활성화 기반 조성, 관광객 500만 시대 준비
-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청년 희망도시 조성

이와 함께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생활SOC 확충, 귀농귀촌 정책, 청년정책 등을 더욱더 내실 있게 추진해 고령화와 인구절벽에 대응할 계획이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신성장 동력산업(도시권인 화순읍) 육성을 중심으로 농업(농촌 지역) 경쟁력을 키우고, 문화관광 산업(도농 연계)을 활성화해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도농·산업 간 균형·상생발전을 도모하겠다”며 “협정의 정책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군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개발·추진해 ‘행복 1번지 화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세계유산 특별법’ 국회 통과...화순군 관광자원 개발 등 기대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을듯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화순군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역 내 보유중인 세계적 유산들의 가치 제고는 물론 관광자원 개발 등으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감도 나타났다.

화순군에 따르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와 주변 지역 지원 내용을 골자로 한 ‘세계유산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지난 2016년 구충곤 화순군수가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회장을 역임할 때 정진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해 국가가 종합계획을 수립·추진, 사·도지사는 매년 세계유산 보존·정비 사업계획을 수립해 실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화순군 춘양면과 도곡면 일대에 있는 화순 고인돌 유적은 지난 2000년 12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국내 전체로는 석굴암, 불국사, 수원화성, 창덕궁, 종묘, 안동하회마을 등 총 14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지정된 상황이다.



화순 고인돌 유적

구충곤 화순군수는 지난 2016년 세계유산을 보유한 도시로 구성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직후, 특별법 제정을 위해 회원 도시와 함께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회원도시 중에선 처음으로 지난해 9월 화순군의회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아끼지 않았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세계유산 지구 등재지구와 보존지구, 조성지구로 구분해 규제를 한층 합리화할 수 있게 됐다. 조성지구 안에서는 관광 기반시설의 설치나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적절한 개발이 할 수 있게 됐다. 특별법에 따라 문화재정장은 의무적으로 10년마다 세계유산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변경계획을 세워야 한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친환경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대상 확대

화순군, 주택용 외 임업·농업·주민편의용까지 보조금

화순군이 겨울철 난방비 절감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가 큰 친환경 목재펠릿보일러와 난방기(난로)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해 주택용만 지원했지만 올해는 주택용과 임업용, 농업용, 상업용, 주민편의용까지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1세대당 1대를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설치 대상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해서 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31일까지다. 군은 올해 목재펠릿보일러 5대를 지원

할 계획이다.

1대당 비용이 400만원인 목재펠릿보일러는 산림청 보급 대상으로 등록된 제품에 한해 보조금 280만원(70%)을 지원한다.

난방기(난로)는 1대당 비용이 150만원으로 단체표준(SPS-KFIC-A-001-2082) 표시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보조금 105만원(70%)을 지원한다.

목재펠릿은 톱밥이나 폐목재 등 목재 가공 부산물을 톱밥 같은 형태로 분쇄, 건조, 압축해 작은 알갱이 모양으로 만든 연료로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목재 펠릿

을 줄이는 친환경 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주민이 친환경 난방기 사업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설 연휴 오염물질 불법 투기 특별감시

화순군은 설 연휴 오염물질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해 특별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오는 31일까지 이어지는 특별감시 기간에 환경 기초시설, 폐수처리업체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단속, 기술지원 등을 한다.

설 연휴 전까지는 수질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에 자율 점검을 독려하고 특별감시반을 편성해 특별 단속을 벌인다.

설 연휴 기간에는 주야간 환경오염 행위와 수질오염 상황실을 운영하고 오염 의심 하천 등에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연휴가 끝나면 폐수처리 시설 등 장기간 가동이 중단된 환경시설에서 오염물질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기술 지원을 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설 연휴 중 환경오염 행위와 수질오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환경 감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방치된 묘지 70%(추정)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062-412-2800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

함평수목장

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